

# 夏期 한글誌 上 講習號

京城鐘路二丁目九一番地  
朝鮮主日學校聯合會  
아릴 말슴

號五第·卷二第  
【號月八】  
1934

一 部 一  
錢五 金月 六  
錢十 金年 一  
錢五 金 一

所行發  
九二一洞花府城京  
部版出會學語鮮朝  
番六三〇一城京督振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여 각 신문사에서서는 계  
몽운동과 문자보급을  
시행한다. 교육기관에  
서는 학술강습회를 연  
다. 이와같이 의미 있  
는 모임이 곳곳이 열  
린다. 본지는 이번 예  
특별히 한글 지상 강  
습회를 열고, 독자 여  
러분에게 공개하여 한  
글에 관한 필수한 지  
식을 약간이라도 이  
바지하려 한다. 때마  
침 동아일보사 제3  
회 조선어 강습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니,  
그 강습하는이에게 대  
하여도 이것이 혹 일  
부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한글 강습을 열면서

李萬珪

말이 있으면 글이 있어야 한다.  
말은 말을 대신하는 것이니, 그 소리  
가 말소리와 꼭 같아야 하고, 그 작  
는법이 꼭 한결같아야 하고, 이 작  
는법 속에 과학적 짜임과 언어학상  
조건이 갖추어 있어 배울수록 쉽고 재  
미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글은 재래로 적은법이  
너무 난잡하였다. 혹은 말은 변하였  
고 적은법은 옛것 그대로 있어서 말  
과 글이 소리가 서로 다르고, 혹은  
글대로 소리를 내더라고 말은 어지  
로 변하고, 혹은 말대로 소리를 내  
더라고 글자가 케 소리대로 쓰워지지  
않고, 한문 자진 음의 조진음을 희  
생하여 글자의 소리가 명칭으로 쓰  
워지고, 또 열사람 열가지로 적은법  
이다 다르니, 천하기 짝이 없어 글  
이러기보다는 한 잔감같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의 뜻이 있는이로는 다  
극을 있고 조직 있는 통일안이 나오기

를 가다렸던 것이요, 이 기다림에 응  
하여 작년 시월에 한글 통일안이 세  
상에 나왔다. 이 통일안은 배워보면  
극용이 있어서 재미가 나고 읽기 쉽  
고, 또한 음을 따라가 문법적으로 보  
면 매우 간편하게 된 것이다. 이제 민중  
은 이 글을 배워야 한다.

보라, 남들은 소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까지 십 일 이년간을 거의 매일 한  
시간씩 케 나라말을 배우지 않는가?  
그리고도 남을 가르치려면 권본가가  
아니면 못할 줄로 알지 않는가? 그  
런데 조선사람들은 인본을 어깨넘어  
글이라 하여, 소위 식자계급 사람들은  
단 몇십시간도 이 글을 위하여 골똘히  
공부하지 않고, 조리없이 주어들이 안  
것으로 조선글을 안다고 자처하니,  
이 얼마나 케 글을 업수어보는 것  
이며, 얼마나 케 글에 대하여 정성  
이 없는 꼴들이나. 소위 그들이 칭  
다는 것은 케 마음대로 쓰고 케 마  
음대로 소리를 내니가 편하다는대지  
나지 못한 것이다. 이제도 그 버릇이  
남아 있어서 한글 통일안이 나매,  
내가 쓰던 것과 틀린다, 내 습관에 아  
니 맞으니 어렵다, 내 눈에 서투르  
니 잘못되었이다 하는이가 중로년층  
에 약간 있는듯 하다. 그러나 이 인  
습에서 자기 표준을 케일로 알고 힘  
들며 개선의 길을 걷기 싫어하는 노  
쇠부분은 문자 운동에만 있는 것이 아  
니다.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일에도  
지다 있는 것이니, 우리가 여기 관

## 목차

- 한글 강습회를 열면서.....李萬珪 (1)
- 一講 말과 글.....李秉岐 (2)
- 二講 조선 말소리.....李克魯 (3)
- 三講 된소리.....金允經 (4)
- 四講 습관소리.....權惠奎 (6)
- 五講 마침.....李允宰 (7)
- 六講 ㅎ바침.....李熙昇 (8)
- 七講 씨갈 바꿈.....崔鉉培 (10)
- 八講 한문 글자음.....申明均 (12)
- 九講 표준말.....金炳濟 (9)
- 十講 씨갈래(品詞 分類).....최현배 (11)
- 十一講 조선글 연혁.....김윤경 (14)
- 세계 어족.....(15)
- 한글 신문.....(16)

심할배 없다. 우리는 다만 진리를 찾  
아 앞으로 나아갈 것뿐이요, 큰무리가  
합하여 통일에 힘쓸뿐이다. 일반 민  
중은 우리글도 머리를 써서 배워야  
할 가치와 내용이 풍부한 글인 것을  
알아야 하고, 배울만한 값이 없도록  
쉬운 글이라는 멸시하고 천대하는 생  
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 이 지상을 통하여 한글 강

한글 강습회

아릴 말슴의 통일안

# 말과 글

講 李 素 岐

말이란 무엇이며 글이란 무엇인가 하면, 말은 곧 우리 사람들의 의사를 발표하는 소리요, 글은 곧 말을 글씨로 적어놓은 것이다.

혹은 우리 사람들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짐승들도 쉼끼리 쓰러 말의 있다고 하나, 그런 무릇 우리 사람들의 말과는 판관일 것이라, 그런 그대로 두고 지금 예서 말하자는 것은 다만 우리 사람들의 하는 말에 대하여서만이다.

한데 우리 사람의 말인들 서로 다 같은 건 아니다. 그나라나 그 민족을 따라 대개 다르다. 그러하여 케마다 케나라 케민족의 말을 가지고 국어라 하여 펴 끄집이 여기고 승상하지 않느냐. 어떤 학자는 국어를 국성(國性)이라고까지 하여 그 국가의 생명이 그 국어에 달렸다고 하였도. 무릇 나라나 민족의 특칭(特性)을 말하자면 먼저 그 국어가 다름을 이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이만큼 그 국어는 그 나라마다의 가장 중대한 보배요 자량이 되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말에는 같은 계통의 다른 것과 다른 계통의 다른 것과의 두 가지가 있으니, 중국어(中國語)와 우

리 조선말과의 다른 것은 계통의 다른 것이고, 몽고어(蒙古語)와 우리조선말과의 다른 것은 같은 계통의 다른 것이다. 같은 계통이라 함은 다만 그 말의 형식(形式)이 같음을 이르는바이다. 형식의 같음도 그 어느 정도까지에 그칠 뿐이고, 그밖의 모든 것이 서로 다 다른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어떤 이는 우리말과 몽고말과는 같은 계통의 말이니 심상팔구는 서로 같으리라고 짐작하는지도 모르나 그런 건 아니다. 천면 다르다. 몇만년 전 같은 민족으로서 가처 생활할 때에는 같은 말들을 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뒤 장구한 동안 서로 나뉘어 살아오며 습관 풍속 정치 제도가 달라짐을 따라 무릇 말도 다르게 발달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글은 말보다도 훨씬 그뒤에 생겨난 것이다. 어느 나라의 글이든지 다 그러한 것이다. 말만 가지고 쓰려면 부족함 불편함을 아니느길 수 없으므로, 자연 글이란 것을 발명하게 된 것이다. 말이 아무리 신중하고 교묘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리를 들을만한 가까운 곳이나 또는 한때 한 곳에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만일 먼 곳이나 먼 곳이나 다른 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곳에는 글이라야 한다. 말만 가지고는 아니된다. 지금처럼 전화, 유선기, 발성영화 따위가 발명되었더라면 글이 소용없을 것도 같으나, 그

릴수록 글은 글대로 소용되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의 문화는 글이 발명되어 발달함을 따라 또한 발달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것도 오로지 글의 덕택이 아닌가. 인쇄술이 발달되며 글이 펴 보급된 까닭이 아닌가. 글도 말의 다름과 같이 나라마다의 쓰는 글이 서로 다르다. 그 수요가 여간 많은 게 아니다. 그 많은 수요를 다 들어 말할 수 없으므로, 큼직하게 그걸 두어가지로 나누어 말하고자 한다.

하나를 그림글, 또 하나는 소리글이다. 그림글은 옛날 우리 사람들의 지식이 그다지 열리지 못하던 때 말 대신 그림을 그리어 제 의사를 알리던 것이다. 곧 산 모양을 그리어 산으로, 새 모양을 그리어 새도, 반달을 그리어 달도, 동그라미를 그리어 해로 알리던 한문의 옛 친사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노를 맺어 쓰던 결 대신한 것이라 한다. 이것이 아직 문화정도가 그다지 열리지 못하던 때에 있어 발명되어 쓰이던 것으로서, 그 뒤 점점 발달하여 지금와는 자형(字形)이 꽤 다르게 변화하였다. 지금의 한문 글자는 그때와 같은 그림글로는 볼 수 없이 되었다. 지금 한문 글자의 보통 쓰이는 해치나 행치나 초서를 보고야 누가 그림 뜻으로 생각하겠는가. 다만 한 글자로서 기억하여 알뿐이다. 마치 영어 글자를 보고 아는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지

금의 한문 글자는 곧 그림글은 아니라고 하여도 가하다.

소리글은 소리를 쉼기 위하여 맨 든 글이다. 우리 사람들의 지식이 제법 발달된 때에 비로소 발명된 것이다. 적어도 상당한 문명정도에 이르러 쓰이게 된 무기로 보배이다. 이것을 원시시대(原始時代)나 미개시대(未開時代)에 있어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시대에는 그림글 시대를 지낸 다음에 생긴 글이 곧 소리글이다.

소리글에도 몇가지 종류가 있다. 한 음절(音節)된 가나(假名) 글자와 같은 것도 있고, 자음(子音) 모음(母音)으로 된 한글이나 영문(英文)과 같은 것이 있다.

그중 가장 용하게 모하게 더할라 위없이 잘된 것은 우리 한글이라 한다. 한글이 이렇게 잘되었다 함은 예컨대 조신의 학자들이 기릴 뿐 아니라, 이 근자 다름 학자들도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글이라 하면 한문만을 아는 자가 없지도 않다. 수천년을 두고 한문을 씌오던 버릇으로 또는 한문만 숭상하고 또는 펴 고루하여 한문의 외에는 글이 없는 줄 알던 버릇으로 하여 그러하다. 말은 우리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고, 글은 말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런즉 우리 조선사람으로서 조선말을 쓰는 한글을 쓰는 것이 가장 당연한 일이다.



# 三 된 소리

金允經 講

(一) 된 소리의 뜻. 된 소리는 어떠한 닿소리를 더 단단하게 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가령 「의 된 소리는 ㄱ, ㄷ의 된 소리는 ㄲ, ㄸ의 된 소리는 ㅃ, ㅆ, ㅈ의 된 소리는 ㅆ, ㅉ같이 내는 것들이다.

(二) 된 소리를 내는 법. 된 소리는 후 닿소리를 갑철 단단하게 내는 것인고로, 먼저 후닿소리 내는 법을 말하여야 된소리 내는 법을 말하기 쉬울 것이다.

「은 혀뿌리(舌根)를 목젖(懸壅垂)에 닿이어 막고 내쉬는 숨으로 그것을 드면서 내는 것이다. 그러한데 「의 된 소리는 혀뿌리를 목젖에 닿이기를 「보다 갑철 단단하게 닿이 있다가 내쉬는 숨으로 그 막은 곳을 드면서 낸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 된 소리는 「의 갑철되는 「으로 표시한다.

「은 혀끝을 씌임천칭(硬口蓋)에 닿이어 막았다가 내쉬는 숨으로 이것을 해치면서 내는 것이다. 그러한데 「의 된 소리는 그 닿이는 정도를 더 단단하게 하였다가 내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 문에 「의 된 소리는 「으로 표시한다. 「은 우아래의 두 입술을 한대 닿이어 막고 내쉬는 숨으로 이것을 드면서 내는 소린데, 「의 된 소리는 그 보

다 갑철 단단하게 벌뿐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 된 소리는 ㅃ으로 표시한다. 「은 혀끝을 씌임천칭 끝과 우의 앞니 바투 뒤에 닿으랴말랴 살짝 닿이고 내쉬는 숨으로 그 사이를 갈아내는 소린데, 「의 된 소리는 그보다 단단하게 갈아벌뿐이다. 그러하기 때 문에 「의 된 소리는 ㅆ으로 표시한다. 「은 혀 앞끝(조음 앞쪽)을 씌임천칭에 조금 닿이고 내쉬는 숨으로 그 사이를 갈아내는 소린데, 「의 된 소리는 「보다 단단하게 갈아벌뿐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 된 소리는 ㅆ으로 표시한다.

이밖에 어느 후닿소리든지 이 모양으로 된 소리를 만들어벌수가 있다. 가령 ㄴ, ㄹ, ㅇ, ㅎ 같은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하나 이러한 소리들은 같은 소리가 맛 닿거나 접변(接變)으로 됴이 아니고는 우리말에 쓰일 때 가 없다. (ㅇ, ㅎ도 훈민천음에 「사 람마다 혀 수히 나져, 「洪聲「字宗」라 하여 씌이 있으나, 이제 우리말 에는 도무지 아니 씌나.)

ㄷ, ㄱ, ㄴ, ㄹ 같은 씌소리(이것도 거듭된 소리)라든지 다른 거듭된 소리에 는 된 소리가 없다. 이는 거듭 되므로 이미 단단한 소리 곧 된 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三) 굴러진(轉化된) 된소리. 이우에서 된 소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였다. 그러하나 그 밖에 또 우의 바침의 힘(影響)을 입어치 그림 에 있는 어떠한 후닿소리가 된소리 처럼 나는 소리가 많이 있다. 이러

한 따위를 「굴러진 된소리」란 이름을 주어 조금 설명하고치 한다. 원 「된 소리」는 우에서 말함 같이 어떠한 후닿소리가 거듭되어 된 것이지만, 이 「굴러진 된소리」는 우에 있는 다른 어느 후닿소리를 내는 바람 에 그 밑에 있는 다른 어느 후닿 소리를 되게 나게 하는 것이다. 곧 닿 소리는 「ㄴ, ㄹ, ㅁ, ㅇ을 제외하고는 어 느 닿소리와 만나게 되면 그 밑에 있 는 「ㄷ이 만나면 「이 나는 바람에 「은 「ㄷ이 되고, 「ㄱ이 만나면 「이 나는 바람에 「은 「ㄱ이 되고, 「ㄴ이 만나면 「이 나는 바람에 「은 「ㄴ이 되고, 「ㄹ이 만나면 「이 나는 바람에 「은 「ㄹ이 되고, 「ㅁ이 만나면 「이 나는 바람에 「은 「ㅁ이 되고, 「ㅇ이 만나면 「이 나는 바람에 「은 「ㅇ이 되고, 「이 만나면 「이 나는 바람에 「은 「이 된다.

그러한고로 「ㄱ다」는 「따」와 비슷하게 들리고, 「사가」는 「까」와 비슷하게 들리고, 「쁘」는 「쓰」와 비슷하게 들린다. 그러하나 같은 것은 아니 다. 곧 「아」를 각각 그 우에 두어 잇대어 읽어보면 분명히 같지 않음 이 드러난다. 「아까」는 「앗가」와 같

고 「아까」는 「악가」와 같으며, 「아쁘」는 「압스」와 같고 「아쓰」는 「앗스」와 같은 것이다. 그러한데 우리가 「까지」, 「까담」의 「까」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 누구든지 「까지」, 「까담」으로 내지 「까지」 「까담」이나 「빠지」 「빠담」으로는 내지 아니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말에 쓰이는 된 소리라는 것은 다 된소리로 내지 클러된 「된소리」로 내지 아니한다. 그러 한고로 우리말과 일치하게 적고자 함 에는 어떠한 한가지의 소리를 어느 닿소리에 합하여 「된소리」가 되게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된시옷」(또는 비음이나, 무엇이냐) 한가지로만 재 래에 된소리를 적어오던것의 그릇됨 을 알게하여 주는 것이다.

(四) 된 소리의 첫소리 될 때와 끝소리(바침)될 때의 다름. 된 소리가 첫소리(初聲)로 쓰일 때에는 커 대로 소리를 나타내지마는, 끝소리로 쓰일 때에는 그 한부분 밖에 드러내지 못함이 원칙이 되었다. 가령 「까지」의 「ㄱ」은 커대로 된소리로 나타나는, 「된」의 「ㄴ」은 된소리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 한부분 「ㄱ」만 드러내 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담」의 「ㄷ」은 「담」의 「ㄷ」과 같지 아니하며, 「빚」의 「ㅂ」은 「빚」의 「ㅂ」과 같지 아니하며, 「짜」의 「ㅈ」은 「짜」의 「ㅈ」과 같지 아니하며, 「짜」의 「ㅈ」은 「짜」의 「ㅈ」과 다르며 「알」의 「ㄴ」은 「다」의 「ㄴ」과 다르며



# 四 습관소리

(習慣音)

講 權 應 奎



6818079

말의 습관으로

아니하게 되는 때 적음과 같고, 홑소리의 습

### 【가】

「가」나 「가」로 변함이나

「하」(하)고, 「그」(하)의 습관

「우」(우)와 「우」(우)로 변함이나

「안」(안)의 습관

「안」(안)의 습관

### 【나】

「나」나 「나」로 변함이나

「사」(사)와 「사」(사)로 변함이나

「수」(수)와 「수」(수)로 변함이나

「조」(조)와 「조」(조)로 변함이나

「기」(기)와 「기」(기)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 【나】

「나」나 「나」로 변함이나

「시」(시)와 「시」(시)로 변함이나

「정」(정)의 습관

「정」(정)의 습관

「수」(수)와 「수」(수)로 변함이나

「한」(한)의 습관

「말」(말)의 습관

「말」(말)의 습관

### 【나】

「나」나 「나」로 변함이나

「안」(안)의 습관

「안」(안)의 습관

「안」(안)의 습관

「안」(안)의 습관

「안」(안)의 습관

「안」(안)의 습관

「안」(안)의 습관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도」(도)의 습관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수」(수)와 「수」(수)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가」(가)와 「가」(가)로 변함이나

五 講

바 침

李 允 宰

一、바침의 성질

한글은 소리글씨(音標文字)로 닿소리  
가 먼저 오고 홀소리가 뒤에 와  
서 한낱의 소리가 되며, 또 닿소리  
가 하나 후 둘이 그 끝에 붙어서  
한낱의 소리가 된다. (각, 값, 밝,  
... ) 이와 같이 홀소리 아래에 붙  
는 닿소리를 우리는 바침이라 이름한  
다. 우리의 조선 말소리에 바침은 아  
래와 같은 몇가지 특징(特徵)이 있다.

1. 바침이 있는 글씨는 어떠한 경  
우든지 다만 한 소리로만 그치는 것
2. 홀소리의 우에잇만 그 소리를  
굴러내리(轉下)는 것
3. 닿소리의 우에잇는 흔히 그 소  
리를 이어바꾸(接變)는 것
4. 바침이 들인 때에는 다만 그  
중에 하나만 소리를 내게 되는 것
5. 첫소리와 바침이 같은 글씨로 되  
소리내는 꼴이 다르니, 곧 파열음(破裂  
音)의 폐쇄음(閉鎖音)의 작용을 하는 것
6. 진동음(振動音) 인이 바침으로  
될 때에는 실측음(舌側音)으로 되는 것
7. 마찰음(摩擦音) 인이 바침으로  
될 때에는 폐쇄음(閉鎖音) 인이 되는 것
8. 「ㄱ」의 끝맺음 때나 닿소리 우

에서는 같은 값(音價)을 가지는 것  
9. 「ㄴ」의 끝맺음 때나 닿소리 우  
에서는 같은 값을 가지는 것  
10. 「ㄷ」의 끝맺음 때나  
닿소리 우에서는 같은 값을 가지는 것

二、바침의 변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는 「終聲復用  
初聲」이라 곧 바침은 처음소리 (곧  
닿소리)를 다시 쓰라 하며 닿소리를  
모주리 다 바침으로 쓰라는 뜻이며,  
또 그때에 쓴 글에 보면 지금 아  
니 쓰는 바침을 많이 쓴 것이 있었  
다. 그 뒤 한 팔십년을 지나 세종대  
왕(中宗大王) 때에 최세진(崔世珍)씨가  
「初聲終聲通用八字」하라 곧 첫소리와  
바침을 여덟자(「ㄴ」「ㄷ」「ㄹ」「ㅂ」)만 공  
용으로 쓰라 하며 그 여덟자 이외  
에는 바침으로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아  
니한 것이니, 이로부터 세상에서 모두  
이 최초의 하설을 좇아 「ㄷ」「ㄹ」  
등의 바침 쓰기를 폐하여 버렸으며,  
더구나 근년에는 또 「ㄷ」「ㄹ」 바침까지  
쓰지 아니하게 되어 다만 일곱자(「  
ㄴ」「ㄷ」「ㄹ」)만 바침으로 써서 「ㄷ」  
「ㄹ」등을 이왕에 바침으로 썼던 기  
역조차 없애 버리고 만 것이다. 한 삼십년  
전에 우리말 연구의 바늘길을 열어  
준 주시경(周時經)씨가 우리글의 문법  
을 바꾸 청하기 위하여 「終聲復用初聲」  
을 부활시켜서 닿소리 열 녀자를 모  
두 다 바침으로 쓰게 하였다. 이에  
비교 소 우리글이 문법적 체계(文法的  
體系)를 얻게 되었다.

三、바침을 다 쓸 이유

이와 같이 바침을 모두 다 쓰게  
됨에 대하여 여러가지 편익이 있다.  
첫째 문법적으로 말의 도와 어미  
활용(語尾活用)을 자유자재로 하게 할  
편익이 있다. 곧 「밥」(食)이란 말을  
가지고 여러 도를 달아

밥에 은이  
도을

와 같이 낮(晝) 젓(乳) 꽃(花) 빛(光)  
밭(田) 끝(末) 앞(前) 잎(葉) 밖(外) 값  
(價) 값(價)들도 다 어떠한 도를 달아  
서 쓰드래도 안될 것이 없으며, 또 「떡  
다」란 말을 가지고 여러 도를 달아

먹고다  
기어나

와 같이 곧다(直) 얻(得) 늦다(晚) 찾다  
(尋) 쫓다(逐) 같다(如) 깎다(削)  
섞다(混) 앉다(坐) 많다(多) 옳다(可)  
할다(祇) 없다(無) 들도 다 어떠한 도  
를 달아서 쓰드래도 안될 것이 없을  
것이다. 꼭 이렇게 쓰면 우리글이 불  
규칙(不規則)이 없게 되어 이야말로 청  
연(整然)한 질서를 보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글은 본래 소리글씨지마는  
바침을 여럿을 쓰므로, 말미암아 말의  
단위를 또렷이 나타내어 자연이 표의 환  
(表意化)하게 되므로 보는 때에는 막대  
한 편익을 주게 될 것이다. 곧

잎(口) 잎(葉)。

집(家) 짚(藁)  
옷(衣) 옷(漆)  
맛(味) 말(昆)  
빛(梳) 빛(債) 빛(光)  
낮(鎌) 낮(晝) 낮(顏) 낮(個)  
곧다(堅) 굵다(凶)  
벗다(脫) 번다(延)  
집다(持) 쪼다(仗)  
갖다(備) 같다(如)  
맞다(迎) 맡다(任)  
안다(抱) 앉다(坐)  
막다(防) 맑다(淸)  
삼다(爲) 삶다(烹)  
잇다(續) 잇다(有) 잇다(忘)  
엎다(負) 엎다(覆) 엎다(無)

이와 같이 소리는 각기 서로 같으되  
말의 뜻이 다른 것은 바침이 각기 다  
르게 되었으므로, 한번 보야 알든 구  
별하게 된다. 같은 소리의 말이 향  
상 서로 혼동되기 쉬우나 될수있는  
대까지 그 혼동되는 점을 피하게 하  
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재래에 쓰지 아니하던 바침을 쓰는대  
대하여 어렵다 하는이가 있으나, 실상  
그렇게 쉬우할 말이 그리 많은 것이  
아요 또 원만하면 스스로 해득하여  
알만큼 쉬운 것이 어늘, 한번 쓰기를 시  
험해보지도 아니하고 또 알기를 힘  
써보지도 아니하고, 다만 말청만 부  
리는 것들은 아직도 우리글을 큰대하  
는 더러운 습관이 남음이요, 아무것  
도 하기 싫다고 하는 게으른자의 심  
리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 「ㅎ」바침

李熙昇

지금은 벌써 「ㅎ」바침의 용고 그  
것들을 논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ㅎ」이 바침 될수 있나 하  
는 의심할 가진자가 있고, 실험의  
심까지는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  
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실케로 쓰  
기를 주저하는 이도 있는데도 그러  
므로 다시 한번 「ㅎ」바침의 음리상(音  
理上)으로도 맞고 문법정리상(文法整理  
上)으로도 간편하며 조음도 어렵음이 없  
다는 것을 극히 간단히 적어 보려한다.

## 1. 「ㅎ」소리의 본질

「ㅎ」소리가 바침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먼저 「ㅎ」소리의  
본질(本質)을 말하여야겠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서려면 관계상  
먼저 변함을 피하기 위하여 「ㅎ」의 발음  
(發音)될 때의 생기는 발음기관(發音機  
關)의 생리적작용(生理的作用)과 음리  
(音理)의 관계를 일일이 말할수 없으므  
로, 다만 「ㅎ」소리의 본질의 결론(結論)  
을 먼저 보이고 실례(實例)를 들어서  
그것을 차차 증명하여 가려한다. 즉  
「하」인 후두(喉頭)에서 기류(氣流)  
가 마찰(摩擦)되어 발음되는 자음(子  
音)이다. 그러므로

(1) 「하」인 다음 자음과 같이 발음

특이(特異)한 성질을 가졌다. 즉 다른  
자음들은 인두(咽頭) 구강(口腔) 비강  
(鼻腔)을 포함한 조음부(調聲部)의 작  
용으로 발음되지만, 「하」인 조음부의  
범위를 벗어나서 후두에서 발음된다.

### (2) 그리하여 「하」인 조음부의 모든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子音)과 등  
시에 발음될수 있다. 즉 「하」인 다음  
자음과 혼합(混合)할수 있다.

### (3) 특히 「하, 마, 바, 사, 자」의 과열 음(破裂音)과 서로 혼합될 때의 그 특성(特徵)이 가장 잘 드러난다.

## 1. 혼합되는 실례

다음에 「하」의 「하, 마, 바, 사, 자」  
의 과열음과 만나서 혼합되는 실례  
(實例)를 보이면

「하」인 자, 즉

「하+가=카...각하(割  
下)→가가.  
조, 많→만료.

「하」인 마, 즉

「하+마=마...만하(滿  
下)→마라라라퍼치.  
조, 많→만다.

「하」인 바, 즉

「하+바=바...발하(發  
下)→바...일학(一  
學)→아와.  
조, 많→수평아라.

「하」인 사, 즉

「하+사=사...잇친다  
→아의친다.  
조, 많→수평아라.

의와 같이 된다. 이 때에서 보이는  
X표는 화법에 의미한다. 화법의 구  
선후가 없는 것이다. 즉 X표로 보이는

것과 같이 그 선후가 서로 바꾸어도  
래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된다는 것이다.  
과면 「하」와 「하」의 섞이면 「하」이 되  
고 「마」와 「하」의 섞이면 「마」이 되고  
「바」와 「하」의 섞이면 「바」이 되고 「사」  
와 「하」의 섞이면 「사」이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解決)하는 것이 우에 들  
어 보인 실례(實例)를 증명하는 일  
도 되고 따라서 「하」바침의 성립(成  
立)될수 있는나 없는나 하는 열쇠도  
된다고 생각한다.

## 1. 실험상의 증명

그런데 원래 과학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실험청음학(實驗聲音  
學)에서 응용(應用)하는 카이모그래피  
(Kymography)라 하는 기계가 있어서,  
이것이 음파(音波)의 진동(振動)하는  
상태를 곡선(曲線)으로 나타내는 장치  
(裝置)를 가진 기계이다. 이 기계로 「하」  
와 「하」를 발음하면 때에 그러한 선과  
「하」의 발음과 비교하여 보면 영의 판단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기계는 너무 비싼고로 누  
구나 손쉽게 실험하고 볼수가 없다. 한  
가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이 청음현  
상(聲音現象)을 실험할수 있으니, 코푸  
리 종의와 같이 얇은 종의 조각을 손에  
들어 잡아 흔들면 그리고 「가」자줄 「나」자줄  
의 밖의 「다, 라, 마, 바, 사, 자」머려줄의  
소리를 발음하여 보면 그 종의 조각은 정  
지(靜止)하여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  
주 급히 좌우 진동을 할뿐일 것이다. 우  
리가 매우 단단한 음이라고 생각하는

「까」자줄 「따」 「빠」 「짜」 자줄의 머려  
소리를 발음하여 볼지라도 종의 조각은 그  
다지 진동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하」  
자줄의 머려자의 소리를 그와 같이 입 앞  
에 얇은 종이를 느리어 가까이 대고 발  
음하여 보자면, 그 종의 조각은 영전의  
날려 그야말로 현격한 진동을 하게 될 것  
이다. 그 까닭은 「하」소리를 발음할 때  
에 후두(喉頭)를 마찰하고 몰려나오는  
기류(氣流)가 상당히 강한 세력을 가졌  
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차」 「카」  
「리」, 「와」자줄 소리에 대하여 각각 그  
와 같이 실험하여 보면, 「하」자줄 소리  
를 실험할 때와 또 같이 결과나 후인이  
그 이상되는 결과를 얻을수 있게 된다.

그것이 「하, 마, 바, 사, 자」의 행(行)  
의 소리 속에는 「하」소리의 분자(分子)  
가 들어 있어서 역시 후두를 마찰하  
는 기류(氣流)가 강하게 흘러나오는  
사실의 증명하는 것이다.

이 위에서는 「하, 마, 바, 사, 자」의 「하」  
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  
으나, 역(逆)으로 「하」의 「하, 마, 바, 사, 자」  
와 만나면 서로 섞이어서 「하, 마, 바, 사, 자」  
소리를 성립(成立)시킨다는 사실도 의  
심할 여지없는 해명(解明)되었으리라  
민는다. 「하」바침을 쓰므로써 문법상  
(文法上)으로도 간편하게 되는 것을 보  
이고 싶으나, 지면 관계로 이만 그친  
다. 이 문체에 대하여 좀 자세한 논술  
(論述)은 「한글」 제 1권 8호의 「하」바  
침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九 표준말 (標準語)

講 金 炳 濟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을 물  
론하고 치마다 특색 있는 나라말을  
가지고 있으니, 가령 영국말 아라사  
말 독일말 조선말등등 이 세계에는  
무릇 일천 오백에 가까운 각각 특  
립한 말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여러가지 말 가운데  
대외도 그 근본은 같으면서 제각기  
모여 사는 지리적환경(地理的環境)에  
따라 말이 다르고, 계급(階級)과 직  
업(職業)과 취미(趣味)등의 사회적환  
경(社會的環境)에 따라서도 말이 또  
한 다르다.

가령 조선말 가운데에도 남쪽의 제  
주도(濟州島)말과 북쪽의 의주(義州)  
나 회령(會寧)등의 말은 서로 달  
라 마치 외국말과 같은 느낌이 없  
지 않다. 이와 같이 조선말의 사투  
리의 분포된 구역을 나누어 보면  
一, 관북사투리(咸南, 咸北)  
二, 관서사투리(平南, 平北)  
三, 중부사투리(黃海, 江原, 京畿, 忠  
南, 忠北)

四, 호남사투리(全南, 全北)  
五, 영남사투리(慶南, 慶北)  
등 다섯가지 사투리가 있다고 하겠  
는데,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골

(郡)마다 조금씩 다른수도 있으나, 말의  
갈래라는것은 거진 무한정한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여러갈래의 말  
중에 어느 한가지의 말이 표준말로  
되어야 하나니, 대개는 그 나라의 수  
부(首府) 곧 서울말이 표준말로 되  
고, 그 이외의 말은 모두 사투리(方  
言)로 치게 된다. 그 까닭은 수부  
의 말이 반듯이 좋아서가 아니다.

어느 나라를 볼수록 그 나라의 처  
음은 정치(政治) 문화(文化) 교통(交  
通)의 중심이 되는 곳이므로 모든  
문화의 집산(集散)이 되기때문이다.  
문화의 집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수  
많은 사람의 집산이 되고, 사람의 집  
산이 곧 말의 집산이 되기때문에 서  
을말은 여러 지방 사투리와 혼성(混  
成)이요 중화(中和)된 사투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말을 서울말로 정하  
는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같은 서울  
말이라 하더라도 앞에 말한바 사회  
적환경에 따라 그 말에도 또한 다  
소의 차이가 있기 까닭에 중류사회  
의 말을 취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상류사회의 말은 상류계급의  
특수한 말씨가 많을뿐 아니라, 어태  
(語態)의 부자연한것과 흔히 외국말의  
혼용(混用)등으로 표준말이 되기에 적  
당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하류사  
회의 말은 하류계급의 독특한 말씨  
가 많은대다가 말의 품위(品位)가 낮은  
것과 변화가 심한것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표준말이 되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표준말은 이와 같  
은 결함(缺陷)의 비교적 적고, 일반  
적인 중류사회의 말을 삼는것이 가  
장 좋은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표준  
말의 생명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케 말한바 중류사회의 말이라 하도  
래도 아무런 수정(修正)도 없이 그  
대목을 표준말로 정한다는것은 무론  
아니다. 서울말이라고 반듯이 서울말  
보다 낫다는것이 아니요, 서울말에도  
서울말보다 좋은 말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의 중류사회에서 쓰고  
있는 말의 범위를 가지고 세밀한 조사  
와 정확한 연구를 더한 후에 얻은  
바것이어야 할것이다.

플렌드 사람 자멘호프와 같은 사  
람은 한민족의 국어를 초월하여 국  
가와 국가와의 사이에 언어가 서로  
잘 통하지 못하는 불편을 구한다는 뜻  
으로 에스페란토(Esperanto)를 연구하  
였거니와, 요사이 아라사의 어떤 언어  
학자는 각각 케나라말을 버리고 세  
계언어를 한가지 말로 통일하여 보자  
는 구단론을 주장하는데도 있으나, 이  
것은 한개의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진대, 표준말의 제정인 문자통일과  
함께 여간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말의 표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생각하여야 할 몇가지의 조건  
을 들어보면

1, 역사적인연(歷史的因緣)이 있는 말

을 취하여야 할것이니, 이미 우리  
가 쓰고 있는 말 가운데서 될수 있  
는대까지 역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말을 취할것이요

2, 현실적 사용범위(現實的使用範圍)  
가 넓어 이미 그 말이 많이 통용  
되고 있는 말을 취할것이요

3, 될수있는대까지 다른 말과의 혼동  
을 피하도록 하되, 익히기에 어렵  
고 말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말을  
취할것이요

4, 말의 품위를 살피 같은 의미의  
말에도 품위가 높고 낮은것이 있으  
니, 나쁜 뜻을 연상하게 하는 말따  
위는 없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  
을 취할것이요.

이와 같이 표준말은 우리가 의식적으  
로 세운것인즉, 이상과 같은 원칙에 어  
그러짐이 있다면 그것은 사투리라고 하  
여야 마땅할것이다. 사투리란 반듯이  
서울밖의 시골의 말을 말하는것이 아니  
라, 서울말이고 시골말이고 간에 표준말  
의 청한 범위에 들지 않은것은 사투리  
라 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준말  
은 이와 같은 표준의 수정을 요하는 것  
이다.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무의식  
적으로 성립하는것이 아니요, 의식적  
으로 수정하고 윤색(潤色)한것이 어야  
만 할것이다. 그리하여 성립된 표  
준말은 다른 여러가지의 사투리에 대  
하여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여  
러가지 말을 통제하므로써 그 나라의  
말의 근본이 될수 있는것이다.

# 七 ㅅㅇ 끝바꿈

(語尾活用)

講 崔鉉培

\*\*\*\*\*  
\*\*\*\*\*  
\*\*\*\*\*

## 첫째 끝바꿈의 법

(一) 풀이씨(用言)는 즐기(語幹)와 씨끝(語尾)의 두 조각으로 되었다.

즐기(語幹)는 그 말의 실질적(實質)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 고정(固定)하며 바꾸이지 아니하는 조각이요, 씨끝(語尾)은 그 말의 형식적(形式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 문법적(文法的) 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바꾸이는 조각이니라. 보기를 들면

즐기	씨끝
기다리	다
사랑하	다
바라	다
먹	다

와 같이니라.

(二) 풀이씨의 씨끝이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그 끝을 바꾸는 것을 씨끝바꿈 또는 줄여서 끝바꿈(活用)이라 일컫나니라. 이를테면

즐기	씨끝
먹	다
먹	어
먹	은
먹	고

먹 — 기  
로 된 것과 같이니라.

끝바꿈(活用)은 풀이씨에만 있고, 다른 갈래의 씨에는 없나니라.

(三) 풀이씨의 줄기는 단일한 중심관념(中心觀念)으로 되는 것이니 그 으뜸말(原形)의 지파는, 그 뜻을 더 가늘게 매

기 위하여 줄기에 붙어서 그것을 돕는 것이 있나니 이를것들을 도움줄기(補助語幹)라 일컫나니라. 이를테면

『잡으시다』의 『이시』  
『잡았다』의 『았』  
『잡겠다』의 『겠』

과 같은 따위니라.

도움줄기(補助語幹)는 원줄기에 차여 들어가서 한낱의 줄기가 된다. 따라 그것이 씨끝바꿈으로 말미암아 바꾸이지 아니하고 고정적 형태를 지니나니, 이를테면

즐기	씨끝	줄기	씨끝
잡히	다	잡히	다
잡히	고	잡히	고
잡히	어	잡히	어
잡히	기	잡히	기
잡히	니	잡히	니

그러므로 풀이씨는 간단한 것이나 복잡한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한 줄기와 한 씨끝과의 두 조각으로 되었나니라.

(四) 씨끝바꿈(活用)에는 크게 보아 목법(資格法) 이음법(接續法)이 그것이

나니라.

첫째 마침법(終止法)은 월을 풀이하여서 그 월을 끝맺는 법을 이음이나 막다 먹는다... 배품말(敘述形) 막느냐... 물음말(疑問形) 막아라... 시김말(命令形) 막자... 피임말(勸誘形) 막구나... 느낌말(感嘆形) 와 같은 것이니라.

둘째 검목법(資格法)은 풀이씨가 더러는 독립적으로 더러는 월의 풀이(陳述)가 되면서 그 검목(資格)을 바꾸어서, 더러는 어찌씨(副詞)같이 되고, 더러는 어떤씨(冠形詞)같이 되고, 더러는 이름씨(名詞)같이 되는 것을 이음이나 막아 막게 막지... 어찌말(副詞形) 막는 막은 막을... 어떤말(冠形詞形) 막음 막기... 이름말(名詞形) 와 같은 것들이니라.

셋째 이음법(接續法)은 풀이씨가 월의 풀이가 되어서 그 월을 끝맺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풀이씨나 월에 잇는 법을 이음이나, 이를테면 먹으니, 먹으면, 먹고, 먹어도 와 같은 것들이니라.

### 이씨 또는 벗어난

(變格活用言文及變格用言) 다음과 같은 벗어난 끝바꿈풀이씨(變格活用用言)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각각 케틀유한 변칙에 의지하여 일단의 법칙과는 달리 씨끝(語尾)이 바꿈을 인정하고 그 바뀐대로 적기로 한다.

- (一) 즐기(語幹)가 원칙에 벗어난 것.
  - (1) 르벗어난 풀이씨(르變格用言)
  - (2) ㅅ벗어난 풀이씨(ㅅ變格用言)
  - (3) ㅇ벗어난 풀이씨(ㅇ變格用言)
  - (4) ㅎ벗어난 풀이씨(ㅎ變格用言)
  - (ㄱ) 즐기의 끝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것.
    - (5) ㄷ벗어난 풀이씨(ㄷ變格用言)
    - (6) ㄴ벗어난 풀이씨(ㄴ變格用言)
    - (7) ㅁ벗어난 풀이씨(ㅁ變格用言)
    - (8) ㄹ벗어난 풀이씨(ㄹ變格用言)
    - (9) 르벗어난 풀이씨(르變格用言)
- (二) 즐기(語尾)가 원칙에 벗어난 것.
  - (1) 르벗어난 풀이씨(즐기의 끝소리가 르인 풀이씨를 총칭)는 ㄴ ㅅ ㄴ과 특히 홀소리「오」의 우에서는 그 즐기의 끝 ㄴ이 줄어지는 변칙에 따라서 ㄴ이 줄어지도록 적는다.
 

이름말	주는 것
을다(鳴)	우나, 우니, 읊니다, 우오
길다(長)	기나, 기니, 김니다, 기오
- (2) ㅅ벗어난 풀이씨(ㅅ으로 끝진 즐기를 가진 풀이씨의 약간)은 홀소리 우에서는 즐기의 끝 ㅅ이 줄어지는 변칙대로 적는다.

이름말  
잇다(續)  
잇다(瘧)  
잇다(作)

주는 것  
이어, 이으니  
나아, 나으니  
지어, 지으니

(3) 『의』 벗어난 풀이씨(줄기가 홀소리  
『의』로 끝진 음주씨 가운데 『리』 벗  
어난 풀이씨와 『의』 벗어난 풀이씨와  
를 제외한 남아지를 총칭) 『어』 우에  
서는 그 끝소리 『의』가 줄어지는 변칙  
어의지하여 줄기와 씨끝을 합하여  
주는 것이다.

이름말  
쓰다(書)  
크다(大)  
건너다(渡)  
고프다(飢)  
깃쁘다(喜)  
아프다(痛)  
슬프다(悲)

주는 것  
외서, 썼다  
커서, 컸다  
건너서, 건넜다  
고파서, 고팠다  
기쁘서, 기뻐다  
아파서, 아팠다  
슬퍼서, 슬펐다

(4) 흥 벗어난 풀이씨(흥으로 끝진 줄기  
를 가진 어말씨의 약간)는 그 특별한  
변칙의 어의지하여 흥이 줄어지는 것은  
그 줄어진대로 되는 것이다.

이름말  
화요다  
노다라다  
노다라다  
노다라다

주는 것  
하야나, 하얀, 하야면  
하야나, 하야면, 하야면  
하야나, 하야면, 하야면

(5) ㄷ 벗어난 풀이씨(기보형에서 ㄷ으로  
끝진 줄기를 가진 풀이씨의 일부)는  
홀소리 우에서 ㄷ로 바뀌는 변칙대로  
되는 것이다.

이름말  
몸다(問)  
몸다(問)  
몸다(問)

바꾸이는 것  
몸오, 몸이니  
몸오, 몸이니  
몸오, 몸이니

(6) ㅂ 벗어난 풀이씨(ㅂ으로 끝진 줄기  
를 가진 풀이씨의 약간)가 그 변칙의  
어의지하여 (홀소리들 우에서) 그 말 끝  
ㅂ이 『어』로 바뀌는 것이 그 실케의  
바꾸임대로 되는 것이다.

이름말  
움다(臥)  
움다(暑)  
움다(妍)  
움다(助)

바꾸이는 것  
누우니, 누워  
타우니, 타워  
고우니, 고(우)와  
도우니, 도(우)와

(7) 『의』 벗어난 풀이씨는 그 변칙의 어  
의지하여 『아』가 『요』로 바뀌음을 인  
정하고 그대로 적기로 한다.  
[보] 하야도, 하야도, 하야도  
[보] 하야도, 하야도, 하야도  
[보] 하야도, 하야도, 하야도  
[보] 하야도, 하야도, 하야도

이름말  
이르다(至)  
푸르다(靑)  
누르다(黃)

주는 것  
이르러, 이르렀다  
푸르러, 푸르렀다  
누르러, 누르렀다

(8) 『렵』 벗어난 풀이씨는 특별한 그 변  
칙의 어의지하여 씨끝 『어』가 『려』로 된  
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적기로 한다.

이름말  
흐르다(流)  
느르다(廣)  
오르다(登)  
빠르다(速)

바꾸이는 것  
흐러, 흐렀다  
느러, 느렀다  
오러, 올랐다  
빠러, 빨랐다

(9) 『의』 벗어난 풀이씨 끝의 음절 『의』로  
끝진 풀이씨의 그 말 끝 『의』가  
줄어지는 동시의 그 씨끝 『어』가  
『의』로 바뀌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적  
기로 한다.

이름말  
이르다(流)  
느르다(廣)  
오르다(登)  
빠르다(速)

바꾸이는 것  
흐러, 흐렀다  
느러, 느렀다  
오러, 올랐다  
빠러, 빨랐다

(10) 『의』 벗어난 풀이씨 끝의 음절 『의』로  
끝진 풀이씨의 그 말 끝 『의』가  
줄어지는 동시의 그 씨끝 『어』가  
『의』로 바뀌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적  
기로 한다.

## + 씨갈래

(Worarten 품詞)  
崔 鉉 培

어리말의 씨갈래(獨逸語 Worarten, Redefelle, 英語 Part of Speech, 語의 品類, 品詞)를 어떻게 잡는가? 이것은 누구든지 알고싶은 문제이다.

주시경(周時經) 스승님이 그 지은 문 법책에 우리말의 씨를

임, 잇, 움, 첫, 잇, 언, 어, 들, 꽃  
의 아홉 갈래로 가르고, 다음에 『말  
의 소리』에서는 이를 좀 변개하여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으니라.

이것이 각 씨갈래의 보기를 들면 다  
음과 같다.

- 이름씨 — 사람, 나무, 일, 공부, 봄, 여름
- 대어씨 — 나, 너, 차비, 그대, 그
- 셈씨 — 하나, 둘, 셋, 넷, 열
- 음주씨 — 가다, 놀다, 흥르다, 피다
- 어말씨 — 하다, 점다, 단단하다, 춥다
- 잡음씨 — 이다, 아니다
- 어면씨 — 이, 그, 저, 새, 외
- 어찌씨 — 잘, 못, 자주, 빨리, 답히
- 느낌씨 — 하, 아, 아발사, 후유기
- 토씨 — 가, 이, 은, 은, 에, 도, 가지

[실례 생략]

# 漢字音

講

申明均

말소리나 글자음(字音)은 매가 오래 됨을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그리하므로 오늘날의 우리들이 내고 있는 말소리나 한자음(漢字音) 같은 것을 몇백년전의 그것들에 대어보면 적지 않은 틀림이 있어서 어떠한 것은 말이 서로 통하지 못할만큼 달라진 것도 있다. 그리하여서 근래에 와가지고 말소리만은 거의 지금의 소리를 따라서 글이 변하여졌으나 한자음(漢字音)만은 벌써 몇백년전에 운책(韻冊)이나 자전(字典)에 정하여 놓은 옛날 글자음(字音)을 글자음의 표준으로 지켜오는 까닭으로 글자음과 우리들이 실제로 내는 소리와 사이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되어서, 배우는 대와 쓰는 대에 적지 않은 불편이 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한자음(漢字音)도 조선말의 처리와 같이 오늘날의 표준 소리를 좇아서 지금 운책(韻冊)과 자전(字典)에 정하여 있는 글자음들을 모두 고쳐 고치는 것이 옳음을 안다.

글자음(字音)을 지금의 내는 소리대로 고치는 대에 대하여서는 후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이도 있지만, 이러한 이들은 한자음(漢字音)에 대한 지식이 있는 듯 하면서도 실상은 무식한 사람들을 인출한다. 왜 그러나 하면, 본

래 한자음에도 글자음이 아주 변하여서 소리가 달라진 때에는 속음(俗音)이라는 케도를 두어서 변하여진 자음을 좇았고, 또 조선의 한자음은 애초에 동음(東音)이라는 케도를 두어서 한자음의 조신화(朝鮮化)를 우리의 선민(先民)들도 인정하여온 바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한자음의 변하여진 것을 지금의 소리대로 고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느냐. 그리고 오늘날의 한자음이 변하여진 것은 모두가 조신말의 소리가 달라짐을 따라서 변한 것들이다. 그리하므로 한자음의 옛 자음을 지금의 소리대로 고친다는 것은 말의 자연한 형세요, 소리와 글자와를 일치시키는 소리글자로서의 정당한 요구일 것이다.

고쳐서 적을 때를 들면 이렇하다.

### 제 一 홀소리만을 고쳐서 적을 것

一, 본래 「ㄱ」의 홀소리를 가진 한자음은 죄다 「ㄱ」의 소리로 변하였으므로 「ㄱ」로 고쳐 적기로 한다.

- 良方 ㄹ양 — 간방
  - 渤王 ㅂ왕 — 발왕
  - 思想 ㅅ상 — 사상
  - 兒童 ㅇ동 — 아동
  - 子孫 ㅈ손 — 자손
  - 參與 ㅈ여 — 참여
- 二, 본래 「ㄴ」의 홀소리를 가진 한자음은 죄다 「ㄴ」의 소리로 변하였으므로 「ㄴ」로 고쳐 적기로 한다.
- 慨歎 ㄱ탄 — 개탄
  - 愛護 ㅇ호 — 애호

三, 본래 ㅅ ㅈ ㅊ ㅋ ㆁ ㆁ들의 닿소리를 첫소리로 하고, ㄱ ㆁ ㆁ들의 홀소리를 가진 글자음들은 지금의 말소리를 좇아 그 홀소리를 「ㄱ」로 적기로 한다

- 內心 니심 — 내심
- 財物 지물 — 재물
- 對答 디답 — 대답
- 冊床 초상 — 책상
- 梅花 미화 — 매화
- 態度 티도 — 태도
- 培養 비양 — 배양
- 膨脹 팽창 — 팽창
- 生物 싱불 — 생물
- 行質 형질 — 형질
- 商業 상업 — 상업
- 書信 서신 — 서신
- 社會 사회 — 사회
- 少年 소년 — 소년
- 壽命 슈명 — 수명
- 贖罪 속죄 — 속죄
- 術法 술법 — 술법
- 積山 자산 — 자산
- 著作 저작 — 저작
- 長安 장안 — 장안
- 鄭重 정중 — 정중
- 朝鮮 초천 — 조선
- 主人 주인 — 주인
- 鐘路 종로 — 종로
- 準備 준비 — 준비
- 遮道 차도 — 차도

四, 본래 「ㄴ」을 닿소리를 첫소리로 하고 「ㄱ」의 홀소리를 가진 글자음은 다 그 본음대로 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아래와 같은 것은 예외로 「ㄱ」로 적기로 한다.

- 處女 처녀 — 처녀
  - 唱歌 창가 — 창가
  - 哲學 철학 — 철학
  - 超越 초월 — 초월
  - 秋夜 추야 — 추야
  - 燭淚 촉두 — 촉두
  - 春風 춘풍 — 춘풍
- 五, 본래 ㅁ ㅂ ㄷ ㄹ의 닿소리를 첫소리로 하고, ㄱ의 홀소리를 가진 글자음은 지금의 말소리를 좇아 그 홀소리를 「ㄱ」로 적기로 한다.
- 筆墨 필묵 — 필묵
  - 沈默 침묵 — 침묵
  - 北方 북방 — 북방
  - 朋友 부우 — 부우
  - 品質 품질 — 품질
  - 稟達 품달 — 품달
- 六, 본래 「ㅇ」의 글자음만은 케소리대로 나므로 본음대로 적기로 한다.
- 義州의주 醫員의원 疑心의심
  - 戲弄희롱 希望희망 福姬복희
- 七, 본래 「ㅇ」의 글자음은 「ㅇ」지

금의 말소리를 좇아, 「기시비치」로  
적기로 한다.

기 基礎 기초 기초  
記錄 기록 기록

의 柴炭 석탄 석탄  
猜忌 시기 시기

의 困憊 곤비 곤비  
輻重 치중 치중  
縮衣 치의 치의

八、본대 「체체체」의 글자음들은 「체  
체체」로 적기로 한다.

외 世界 세계 세계

외 細密 세밀 세밀

외 祭祀 제사 제사

외 制度 제도 제도

외 滯症 체징 체징

외 一切 일체 일체

九、본대 「취, 취」의 글자음은 지금의  
말소리를 좇아 「취, 취」로 적기로 한  
다.

취 碎취 취취

취 醉酒 취주 취주

취 取才 취재 취재

제2 말소리만을 고쳐서 적을것

一、본대 「나 녀 뇨 뉴 니 비」들의 글  
자음을 가진 한문 글자가 낱말의 첫  
소리로 될적에는 그 말소리를 따라  
「야 여 유 유 이 예」로 적기로 한다.

嬢 냥 냥

女子 녀자 여자

溺장 뇨장 요장

閨月 윤월 윤월  
泥土 니토 이토

稱廟 비묘 비묘

다만 낱말의 첫소리 이외의 자리에서  
날적에는 그 말소리를 따라 본음대  
로 적기로 한다.

婦女 부녀 남녀

織紐 칩뉴 입니

그리고 한문 글자를 한자만 따로 읽  
을 적에는 본음대로 읽음에 따라 본  
음대로 적기로 한다.

女 개집녀 溺 오줌뇨

二、본대 「랴 료 류 리 레」의 글자  
음을 가진 한문글자가 낱말의 첫소리  
로 될적에는 그 말소리를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기로 한다.

良心 량심 양심

力士 려사 역사

料理 료리 요리

流水 류수 유수

李花 리화 이화

禮儀 레의 예의

다만 낱말의 첫소리 이외의 자리에서  
날적에는 그 말소리를 따라 본음대  
로 적기로 한다.

改良 개량善良 친량

水力 수력協力 협력

材料 재료染料 염료

下流 하류急流 급류

桃李 도리行李 행리

拜禮 배례婚禮 혼례

그리고 한문글자로 한자만 따로 읽을

적에는 본음대로 읽음에 따라 본음대  
로 적기로 한다.

良 어질량 李 오얏리

三、본대 「랴 료 루 르 리 리」의 글자음  
을 가진 한문글자가 낱말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그 말소리를 따라 「나 노 누  
내 너」로 적기로 한다.

樂園 락원 낙원

老人 로인 노인

樓閣 루각 누각

陵墓 등묘 능묘

來日 리일 내일

雷聲 리성 뇌성

다만 낱말의 첫소리 이외의 자리에서  
날적에는 그 말소리를 따라 본음대  
로 적기로 한다.

快樂 쾌락 極樂 극락

父老 부로 養老 양로

高樓 고루 玉樓 영루

丘陵 구릉 江陵 강릉

去來 거래 往來 왕래

雨雷 우뢰 落雷 낙뢰

그리고 한문글자를 한자만 따로 읽을  
적에는 본음대로 읽음에 따라 본음대  
로 적기로 한다.

樂을길락 樓 다락루

제3 말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고  
쳐 적을것

一、본대 「더 도 두 디 데」의 글자음  
을 가진 한문음은 지금의 말소리를  
좇아 죄다 「치 조 주 지 체」로 적기  
로 한다.

低級 더급 더급

田畝 더담 더담

調查 도사 조사

鳥類 도류 조류

躉 두주

地球 지구 지구

佚蕩 더랑 질랑

弟子 데자 체자

帝王 데왕 체왕

한문음은 지금의 말소리를 좇아 「체  
초 체」로 적기로 한다.

天下 더하 천하

鐵道 더도 철도

紹仙 더선 초선

軀體 더투 축투

體育 더육 체육

締結 더결 체결

제4 속음으로 적을것

一、지금의 자킨에는 아무 속음의 규정  
이 없이 속음 한가지로만 읽는 글자  
음은 그 읽는 소리를 따라 속음대로  
적기로 한다.

父母 부부 부모

印刷 인찰 인쇄

一秒 일묘 일초

取扱 추잡 취잡

二、지금의 자킨에는 아무 속음의 규정  
이 없이 발음 따라서 혹은 본음으로  
혹은 속음으로 읽는 글자음은 그 읽  
는 소리를 따라 본음과 속음의 두가  
지로 적기로 한다.

糖分 당분 砂糖 사탕

八月 팔월 八月 와일

講 一 十

조선근근연혁

김윤경

一, 훈민정음나기전  
의우리글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한글이 나  
기 전의 우리 글은 고대문자(古代文  
字)와 이두(吏讀)와 구결(口訣)의 세  
가지라 하겠다.

고대의 글의 대하여는 이제 분명  
히 전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이 어떠  
한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상고할 길이 없  
다. 그러나 고대의 글이 있었다는  
말은 여러 문헌(文獻)에 나타난 것이  
많이 보인다.

황제(黃帝)가 청구(靑丘)를 지나다  
가 삼황내문(三皇內文)을 받았다 함  
이라든가, 신지 비사문(神誌秘詞文)이  
라 함이라든가, 왕문(王文)의 글이 권  
자(篆) 또는 부호(符)와 같았다 함  
이라든지, 신라(新羅)에서 나무를 새  
기어 쓴다 함이라든지, 고구려는 나라  
처음부터 글이 있었다 함이라든지,  
백제에 글이 있었다 함이라든지, 실  
라의 향찰(鄕札)이 있었다 함이라든  
지, 발해(渤海)에는 문자가 있다 함  
이라든지 하는 문헌은 곧 고대의 무  
슨 모양의 글이든지 글이 있었던 것

을 민게 한다.

이두(吏讀)는 이도(吏道) 이두(吏  
頭) 이도(吏吐) 이두(吏套) 이찰(吏  
札)의 여러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지  
마는, 이는 다 비슷한 음을 취하려  
고 한문의 이자 커자를 끌어 쓸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은 같은 『이두』를  
이름이다. 이두는 신라(新羅) 때 학자  
설총(薛聰)이 만들었다고 본이가 있  
으나, 이는 결코 어느 한사람이 만  
들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여러 시대를  
통하여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  
두어진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생  
각한다. 이두는 한문을 빌어서 우리  
말을 적는 글인즉, 한문이 수입된 뒤  
로부터 신라 지증대림간(智證麻立  
干)이 일괄적 버림(記錄)에 한문을  
채용하게 된 이권에 쓰기 시작한 것  
이라 보겠다. 그리하여 여러 해 여  
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완성된 것이  
다. 그리하여 이제로부터 사십년권인  
갑오(甲午)년까지 쓰던 것이다. 설총도  
구경(九經)을 『방언』(方言) 곧 우리  
말로 번역하였다고 하였은즉, 그로 말  
미암아 『이두』란 글이 더욱 완비한  
글이 되게 되었을 것도 상상하기에 어  
림지 아니하다. 그렇다고 그가 처음  
이두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릇된 생  
각이다. 그전 문천과 금석문(金石文)  
에 이미 이두문이 보임으로 보이다.  
진흥왕(眞興王)의 국경 순수비(巡狩  
碑)가 여러가지 두세곳에 남아 있는바,  
거기에도 이두문이 섞임이 보인다.

북한산 비봉(碑峯)에 선 흥왕 순  
수비는 진흥왕 二십 九년(戊子? 西曆  
五六八年) 시월에 세운 것인데, 거기  
이두문이 섞여 있었다. 그리한즉 설총이 이  
두문을 지었다는 신문왕(神文王) 십이  
년(西曆 六九二年)에 전주면 一백 二십  
四년전에 상당하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설총이 이두를 지었다는 것은 그것이 분  
명하다. 이두문은 한문의 음이나 그 것  
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읽는 소리를 가  
지고 우리말을 적는 것이다. 이두 문체  
(吏讀文體)는 맨 처음의 형식과 그 뒤  
의 형식이 같지 아니하나 삼국유사(三  
國遺事)에 실린 향가(鄕歌) 열 비수(首)  
와 관여대사전(均如大師傳)에 실린 향  
가 열 한수 모두 스물 다섯수가 이  
케까지 전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면 내  
용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두  
의 조직은 한자로부터 열 한자까지  
불여져 되었으니, 몇개만 보이면

節(지위), 加于(더욱), 爲白齊(하살  
재) 望良白內臥乎事(바라안는 누운일)  
구결(口訣)은 토(吐)라고도 한다.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에 그 뜻을 깨닫  
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한문의 구결에 우리  
말의 토를 달음 이름이다. 이두는 독립  
한 글이 되지마는, 구결은 한문의 의지  
하여서만 쓰는 글이다. 이 구결은 고려  
(高麗) 때에 생긴 것이다. 늦게 잡아도 고  
려 말년 정몽주(鄭夢周) 이권, 또는 이  
조초(李朝初) 권근(權近)의 구결이나 기  
이전에 생겼 것이다. 그리고 이 구결도  
사십년전 갑오년 지음까지 쓰던 것이다.

구결을 몇개만 보이면  
面(면) 隱(이) 厓(에) 爲尼(하니)  
爲古(하고) 爲也(하야) 乙奴(으로)  
是於乙(이어늘)

二, 훈민정음 (訓民正音)

훈민정음의 곧 이케 쓰는 우리 글(한  
글)이다. 언문(諺文)이란 이름은 한문  
에 중독된 유학자(儒學者)들이 조선글  
판 자기의 글을 낮게 보아 부르던 이름  
이다. 원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최근  
갑오개정(甲午更張) 이후로 한글 운동  
이 일게 되면서, 그 중심인물(中心人物)  
이요 선구자(先驅者)이던 주시경(周時  
經)씨가 한국(韓國) 말년에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부르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다 알게 되어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 훈민정음은 이조(李朝) 넷째  
임금인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즉위한지  
二십 五년되는 계해(癸亥) 곧 서역 기  
원 一천 四백 四십 三년 첫달에 만들  
어서 삼년 동안 대궐안에서 청음청  
(正音廳)을 두고 당시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 연구 토의하게 하기도 하고 실용  
도 하여보게 하다가 원만하다고 생각  
되는 때, 곧 세종 二십 八년 병인(丙  
寅)기원 一천 四백 四십 六년 九월에  
은나라에 퍼어 쓰게 한 것이다. 그러한  
주율이 훈민정음 생긴지 四백 八십 八  
주년이다. 세종은 그때 세력 있게 쓰  
이던 한문이나 이두나 구결을 두고 왜  
또 새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느냐 하면  
첫째는 훈민정음 발표 시문에 밝히  
보임같이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뜻을 과거 하고 날마다 쓰기에 쉽게 하려 함이었다.

들재는 처면상 필요라고 하였다. 이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모든 나라는 다 각각 글을 만들어 자기 나라 방언을 적되, 오직 우리 나라만 없다 하시고, 드디어 새로 스물 여덟자를 만들이시었다』 함을 보아 명백하다.

셋재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라 하였다. 청인지(鄭麟趾)의 훈민정음 서문의 『방언의 서로 같지 아니하기때문에 글을 배우는 이는 그 뜻을 깨닫기 어렵다. 그리하여 상계되는 정음 스물 여덟자를 만들었다』 함을 보아 알것이다.

넷재는 백성의 어눌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세종의 훈민정음 발표 서문 가운데 『어리석은 백성인 말하고서 함이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함은 글이 어렵기때문이라고 쉽게 발표할만한 새 글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로 승사를 들는다 하면 백성의 의사(意思)를 표시하지 못하여 어눌함은 당하지 않겠다 봄이다.』

초성(初聲)

- ㄱ ㄴ ㅇ (엄니소리-牙音)
- ㄷ ㄸ ㄹ (혀소리-舌音)
- ㄴㅇㅇ (입술소리-唇音)
- ㅅ ㅆ ㅈ (이소리-齒音)
- ㅎ ㅇ (목소리-喉音)
- ㄹ (반혀소리-半舌音) △(반이소리)

훈민정음 이후

그러한데 그 뒤 八십 一년을 지난 중

중(中宗) 二십 二년 계해(癸亥) 서역기 원 一천 五백 二십 七년)에 이르러 최세진(崔世珍)이 『훈몽자회(訓蒙字會)』를 짓고, 그 범례에 『언문자모』 諺文字母) 二십 七자라고 하여 이름도 고치고, 글자 수도 한자 줄이고, 글자마다 이름을 주고, 통용 범위의 제한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큰 병들을 우리에게 끼치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初聲終聲通用八字

其 尼 池 梨 眉 非 時 異 役 隱 乙 音 邑 後 擬 的 八 字 是 初 聲 也 終 聲 也 初 聲 獨 用 八 字

中聲獨用十一字

阿 卜 也 於 余 上 舌 止 要 下 牛 卍 由 一 應 不 用 伊 只 用 思 不 用 終 聲 伊 中 聲 初 聲

이와 같이 ㄱ ㄴ ㄷ ㄹ ㅇ 들의 여덟자는 가령 『가』처럼 처음소리로도 쓰이고 『각』처럼 나중소리 곧 바침으로도 쓰게 하였으나, ㅋ ㆁ ㆅ ㆆ ㆇ ㆈ 들의 여덟자는 처음소리만 쓰게하고 바침으로는 못 쓰게 함이 훈민정음에서 『나』나 『다』 한 큰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열 일곱자가 다 바침으로 쓸수 있던 것이 여덟으로만 딱 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것을 『其』라 함 같은 이름들을 다 불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없이 한 것이다.

그러하나 언젠가 변한것인지 알기 어렵

우나, 여덟바침중에서 또 ㄷ 바침도 아니 쓰게 되었고, ㅇ ㅁ ㄴ의 구별이 없게 되고, 또 △도 없게 되고, 어 오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뒤 광무 9년(서역기 원 一천 九百 五十年) 七월 에 신정국문(新訂國文)을 함부에서 발표하였으나, 이는 훈몽자회 범례와 다름이 없었고, 합방 된 뒤 함부국에서 세번째 철자법(綴字法)을 고침이 있었는데, 첫번째(명치 四십 五년 四월)의 것과 둘째번(대정 십년 三월)의 것은 별로 신기한 개혁이 없었으나, 셋번째(소화 五년 二월)의 것은 이제 보통학교

세계의 어족 (世界語族)

- 1. 인도, 저먼어족
    - 인도말, 이란말 (인도말, 파시아말)
    - 알페니아말
    - 헝가리말
    - 알바니아말
    - 이탈리아말 (프랑쓰말, 이쓰와니아말, 포츠갈말)
    - 켈트말 (웨쓰말, 아일랜드말)
    - 저먼말 (독일어, 영어)
    - 빨드말, 슬라브말 (러시아말)
  - 2. 함, 셈어족
    - 합말 (이집트말)
    - 셈말 (아라비아말)
  - 3. 우랄알타이어족
    - 우랄말 (핀란말, 헝가리아말)
    - 알타이말 (몽골말, 모고말, 만주말, 조선말, 일본말)
  - 4. 인도지나어족
    - 서부인도지나말 (시장말)
    - 동부인도지나말 (중국말)
  - 5. 말라이, 폴리네시아어족
    - 인도네시아말 (필리핀말, 자바말)
    - 폴리네시아말 (차모아말, 하와이말)
    - 멜라네시아말 (카롤린말, 피지말)
  - 6. 반투어족 (아프리카도인의말)
  - 7. 드레비다어족 (아프리카도인의말)
  - 8. 아메리카어족 (아메리카도인의말)
- 어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다음 호에 실리겠습니다.

로 고등보통학교까지의 교과서에 채용됨과 같이 크게 개혁됨을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팔총성(八終聲) 제한을 깨뜨리고 말의 발음대로 법에 맞게 적을수 있게 함은 중대한 점이라 보겠다.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는 작년 한글날(시월 二십 九日)에 『한글 맞춤법』을 발표하여 재래 심판의 반항력도 불구하고 다년 연구한 최고한도까지의 학리(學理)를 토대삼아 대개혁(大改革)을 나린 것이다. 학부국안과대체로 같으나 이것이 한결음 더 나은 것이라 하겠다.

# 한글신문

## 조선어학회 월례회

철자사전 문제 토의  
지난 7월 7일 본회 회관에  
서 월례회를 열고, 최현배(崔鉉培)  
의 「씨골바꿈의 검목법」

## 문예가 전체의 망라로

### 동일안 지지 성명.

#### 반대운동을 철저히 배격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한 이래, 각 방면에서 열렬히 이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리해(沒理解)하는 자들의 준동(蠢動)으로 이를 반대하려는 기세가 보이므로, 실체 문필에 종사하는 문예가 일동이 본연히 일어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절대로 지지하고, 반대운동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9일의 문예가 일흔 여덟분의 연서로, 전조선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문예가 전체의 성명서

호란하게 쓰이고 있는 우리

에 대한 강압이 있은 후, 간사장이 희승씨의 사회로 철자사전의 원 중에서 실행위원으로 최현배(崔鉉培), 이희승(李熙昇), 이운재(李允宰), 이극로(李克魯), 김병제(金炳濟) 다섯 분을 뽑아 곧 편찬에 착수하게 하였다.

글의 정리와 동일에 대한 열과 마음으로 멀리 신경(新京)에 있는 동포들이 또한 문예가의 성명을 원조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개인의 명의로도

### 독려문이 답지

문예가의 성명서가 한번 우리 사회에 발표되자, 각 지방으로부터 개인의 명의로 독립문(督勵文)이 답지한다.

## ◇소식

이희승씨는 봉천(奉天)에 재류하는 동포의 초청을 받아, 한글 강습시키기로 칠월 십사일 봉천으로 향하였다.

## 사 고

이번 호는 하기 한글 지상강습호로 하기 때문에 계속문과 투고하신 글은 다 음호로 밀게 되었습니다.

## 新刊紹介

李泰俊氏著

# 달밤

定價 八十錢·送料 四錢

이 책은 그 이름과 같이 시원하고도 깨끗한 소설집이다. 시

作者는 세상이 다 아는바 朝鮮文壇의 人氣作家인 李泰俊氏다 이 『달밤』은 그의 作家生活 十數年 동안의 筆耕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健實한 內容을 가진 二十餘篇의 短篇을 이 한권에 모았다고 한다. 이 책이 좁은 紙面에 그 內容을 紹介하기 어렵거니와, 그의 깨끗한 想과 아름다운 描寫는 임즉히 다른 作家에게서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小說型을 보여 준것 같다

小說를 알려는이나 小說家로서의 李泰俊氏의 뜻을 알려는이는 반드시 한번 읽기를 勸하며, 全篇을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대로 되었으니, 小說을 읽는 한편에 統一案에 對한 智慧를 얻을수 있을것이다.

## 한글 맞춤법 통일안 특권

(한글 第一卷 第十號 特刊)

定價 十五錢

朝鮮語學會에서 往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制定 發表한 것은 朝鮮 文化史上에 新記錄을 지은것이다. 이 빛난 事業을 永代에 保存하기 위하여, 이 案을 制定한 經過 事況과 統一案 全文과 이를 發表할 때의 記事 및 當時一般 輿論을 蒐集하여 特輯을 發行한것이니, 이것이 朝鮮語學史上 가장 貴重한 文獻이 될것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어떻게 생겼으며 全社會에 어떠한 衝動을 주었는가 하는것을 알고자 하는 이는 꼭 한번 보기를 바란다.

## 한글 연구參考書

訓民正音原本 二十錢  
한글 맞춤법 통일안 二十錢

崔鉉培氏 著  
중등조선말본 八十錢  
申明均氏 編

한글歷代選 一圓  
申明均氏 編

周時經 先生遺稿 一圓  
金克培氏 著

한글鐵筆習書 五十五錢  
習書

## 投稿歡迎

本誌는 讀者 여러분의 原稿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이 紙面을 통하여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 一、研究論文. 한글 연구에 관한 意見 發表.
- 一、感想文. 本誌나 혹은 다른 書籍을 읽고 感想된것.
- 一、通信文. 한글에 관계된 것으로 本社나 知友에게 편지하는것.
- 一、研究資料. 地方 사투리, 傳來 童謠 民謠, 傳說, 古談 等 其他.

價 定	
一部	五錢
六個月	三十錢
一箇年	五十五錢

代金은 받듯이 先金을 要함.

昭和九年七月二十九日 印刷  
昭和九年八月一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允宰

印刷人 金鎮浩

印刷所 京城府堅志洞三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京城府堅志洞三番地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朝鮮主日學校聯合會

代金を 보내실 때는

京城府花洞 一二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

京城壹〇參六番으로 하시오